

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제 3대 서울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위원장직 임기를 마치는 임정묵입니다. 이임을 하며 조합에 가입해주신 교수님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한한 감사입니다. 말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교수조합은 전임교원의 과반수 이상 가입한 단체로 성장했고, 여느 교수노조와도 차별화되고 모범적인 교육자 노조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단체 및 임금협상을 통해 교수님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의 물꼬 또한 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주신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죄송함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서투른 조직운영과 부족한 리더십으로 교수님들의 처우는 현저하게 개선되지 못했고, 조합원 한분한분의 어려움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며, 대학 행정의 비효율성을 고치는데 큰 힘을 보태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위상과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 상태에서 교수님들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수조합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닌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서울대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교수 한분한분이 주인공이며 교수님들이 선출하신 후임 임호준 위원장님은 교수조합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것 입니다. 앞으로도 교수조합이 계속 교수회와 공조하며, 교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향상하고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저를 돕기위해 지난 3년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3기 교수조합 집행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6.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제 3대 위원장
임 정묵 배상